



제생의세

원광대학교병원 소식을 더 빠르게 만나기

- 홈페이지 www.wkuh.org/
-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kuh203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wkuh2030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wkuh_org/
- YouTube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을 검색하세요

제 319호 2025년 1월 1일 (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신년사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병원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며, 호남 서해안 지역의 중심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첫째, 중증 질환 중심의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납시다.

우리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상 감축 및 중환자 특수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조정을 하였으며, 중증·희귀·응급진료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진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환자 한분 한분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역시 필요합니다.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병원,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호남·서해안 지역의료의 중심점이 됩시다.

우리는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우수한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아 핵사곤 응급의료체

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사립 대병원으로는 유일하게 권역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9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재위탁을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익산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료를 책임지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병원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투자와 성과로 위기를 이겨냅니다.

우리는 역대 최고점수로 5주기 상급종합병원평가 인증을 받았고, 집중치료실의 확장 및 시설 보완, 호남권 대학병원 최초의 디지털 PET/CT 가동, 외국인 환자 유치인증기관 획득, 호남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익산시 소아응급실 운영,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WITH-WON)을 정착하는 등 의정갈등의 위기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암 치료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대학에 선정되는 쾌거에 맞

춰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는 연구 중심병원으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병원 간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문병원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병원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심합력이 더욱 소중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애사심 덕분에 우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다 발전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희망으로 시작하는 을사년 새해!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병원장 

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5일(목) 원광테크노마켓(WM관)에서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관계자를 비롯,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정부지정센터, 익산시 보건소, 익산소방서, 지역 병·의원 및 의

사회, 원광대학교와 원광대병원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병원은, 매년 4억 8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 ▲재활의료와 협력사업 지속 관

리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본원은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내 공공의료와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계와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최두영 교수, 대한 소아혈액 종양학회 차기 회장 선출



소아청소년과 최두영 교수

소아청소년과 최두영 교수가 지난 25일 청담리 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 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 22대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1993년 창립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청소년의 혈액질환과 암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학회로, 이 분야 환자들의 생존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창립하였다.

1994년부터 원광대병원 교수로 재임 중인 최두영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장, 교수협의회회장, 적정의료실장, 기획정보실장, 진료처장을 거쳐 2015년부터 4년간 원광대학교병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대한 소아과 학회 고시위원 및 홍보정보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정보이사 및 부회장, 대한소아과학회 전북지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실행위원, (사)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소아과학회 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등 학회 및 사회 활동에도 열성을 다하여 왔다.

최두영 차기 회장은 “필수 의료의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고 특히 소아혈액종양 분야의 의료공급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며 “소아혈액종양 분과를 살리기 위해서 수가 현실화와 급여 보조 확대, 전문 의사 및 의료인력 양성 등 환경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한마음 단합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경과 정진성 뇌혈관 센터장,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신경과 정진성 뇌혈관 센터장

영사업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진성 뇌혈관 센터장이 지난 6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정진성 센터장은 지난 2010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부터 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21년 부터는 센터장 직책을 맡아 지금까지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지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본 표창장을 받게 됐다.

특히 응급·중증 뇌혈관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정 때부터 24시간 365일 응급 당직을 수행하면서 전

라북도 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진료를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권역심뇌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도내 주요 의료기관 및 소방본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 전 단계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3년 ‘1주기 권역센터 평가 및 재지정’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역량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024년 우수센터’에 선정되어 심뇌혈관질환 진료·치료·재활·예방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다.

정진성 센터장은 “앞으로도 뇌혈관센터장으로서 지역사회 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영상의학과 강세리 교수,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젊은 연구자 상”수상



영상의학과 강세리 교수

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며 연

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Progression of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Risk Factors in Asymptomatic Individuals”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무증상 환자에서 위험 요인의 변화가 관상동맥 석회화(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CAC)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초기 검사에서 CAC가 없는 환자의 경우 최소 4년간 추적 검

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CAC가 있는 환자는 3년 이내에 CAC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더 짧은 간격의 CAC 추적 검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관상동맥 석회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 추적 검사의 최적 주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환자 관리 전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세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증상 환자의 심혈관 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강 교수는 흉부 및 심장 영상의학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향후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 익산시 유공 시민 표창 수상



서일영 병원장

여한 공로로 익산시 유공 시민 표창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취임한 서일영 병원장은 ▲ 2022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산하 보건의료 지원조직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수탁 운영 ▲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막고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할 익산권 책임의료기관 공모 지정으로 공공의료사업 역할 확대 ▲ 응급의

료센터 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로 소아가 응급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소아응급진료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 최신의 검사장비인 디지털 PET-CT 도입, 최신의 스펙트럴 CT 교체, ▲2028년 운영을 목표로 ‘꿈의 암 치료장비’로 불리는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추진 등 ▲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를 지원, 지방 의료격차 해소 및 암 환자 치료비 부

담 완화로 ▲ 지역민과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외에도 ▲ 익산시민을 위한 건강강좌, 감염병 예방, 금연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공로가 인정돼 익산시민 표창을 수상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본원은 언제나 익산시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 베트남 KNI 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12일(목) 베트남 KNI 그룹(KHOI NGUYEN

INVESTMENT GROUP JSC)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NI 그룹은 2022년에 설립된 투자 및 비즈니스 기업으로,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현재 고품질 의료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해외 첨단 기술 이전, 국제 인적 자원의 협력 및 교류 촉진에 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KNI 그룹은 차후 베트남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로 노인 돌봄에 중점을 둔 의료 인력 양성, 병원 및 종합 클리닉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

KNI 그룹은 지난 5월 21일, 트링 쩡 동(Trinh Quang Dong)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시설 라운딩과 업무 회의

를 진행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2026년까지 의료 분야의 고품질 자원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의료 기술 교류, 병원 운영 컨설팅, 상호 협력방안, 베트남 의료봉사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광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관 재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지원단(이하 지원단) 2기 민간위탁 운영기관(2025년~2029년)으로 재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20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 3월 원광대학교병원이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출범했다. 지난 3년 동안 지원단은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정책 및 기술지원 분야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 수가 6개소로 대

폭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전북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지원단은 2기 운영기간 동안,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정책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를 정교화해 근거 기반 정책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와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시 저소득층을 위한 ‘제8회 감사의 김치 나눔’ 봉사



원광대학교병원과 원누리후원회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제8회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정현율 익산시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및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과 임직원 등 160여명 참여했다. 생활이 힘든 지역사회 저소득층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의 겨울나기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이 매년 연말

직접 담은 김장김치 나누는 행사로,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모금한 교직원들의 기부금 1,200만 원과 원누리후원회 후원금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여만 원에 달하는 김장김치 3,400kg을 직접 담가, 지역사회 저소득층용 2,200kg을 익산시청에, 사회복지기관에 1,200kg을 각각 전달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봉사와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16회 캄보디아 의료봉사 실시 ‘배워서 남 주자’ 라는 지식 보은의나눔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4일부터 11일, 6박 8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안과 양연식 교수를 단장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및 간호학과의 교수, 학생, 간호사 등 총 34명이 원불교 한국 구제병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봉사단은 안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통증과, 치과, 한방과 등 총 7개

진료과로 구성됐다. 단장 양연식 교수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희망을 잇는 것이 의료봉사”라고소감을 피력했으며, 이번 봉사의 기획 및 후원금을 준비한 최운정 교수는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원광대 의대 동문의 숙명이자 약속으로 후진들이 지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올해 봉사활동은 ‘배워서 남 주자’란 주제로, 지식 보은의 의료봉사를 나눔으로 승화시키며 건강교육과 위생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건강 증진까지 기여했다.

전담간호팀 안주희 간호사, ‘2024 익산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 수상



전담간호팀 안주희 간호사

전담간호팀 안주희 간호사가 지난 20일 2024 익산 시정발전 유공 시민 시상식에서 시민 건강증진 향상과 친절하게 대했던 내원 환자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익산시 유공 시민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채장담도내과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의 눈높이 맞춘 자세한 설명과 피드백으로 다양한 검사나 치료에 대

해 환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지역사회 환자나 내원객의 병원 이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주희 간호사는 “병원의 모든 근무자들이 환자와 내원객을 가족같이 대하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지니

고 있다” 며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177회 WKUH 친절직원



혈액증양내과 이승신 교수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인으로서, 의학적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신뢰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환자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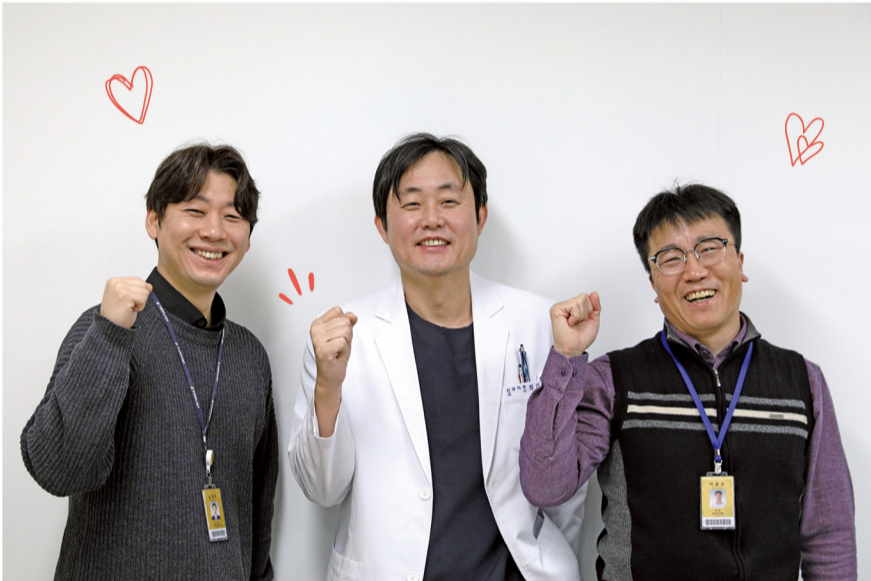


의료정보팀 양은지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저를 친절직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탐방

병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 소개

정보보호팀은 '24년 3월 1일 신설 부서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최신 보안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팀의 중요성

의료 데이터와 환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사고의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보호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 반영하고 이를 전 직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보보호팀의 역할

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운영 :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업무 수행에 관한 심의 책임과 최고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합니다.
3. 위험 평가 및 관리 : 병원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5.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과 권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 정기적인 감사 및 점검 :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하여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보보호팀 성과

'24년 정보보호 공시 - 본원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호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으로 매년 6월 말까지 정보보호 투자현황에 대한 공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개정 공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에 의거 본원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일부 개정하고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 직원 집합 교육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정보 보호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4년 고유 식별정보 안전조치 실태 점검 실행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5만 명 이상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행 -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요청을 받아 자율점검표 6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최초 심사 진행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본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 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총 80개 항목에 대하여 전산정보팀과 함께 5일간 인증심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정보보호팀 향후계획

정보보호팀은 본원의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개선 활동등 개인 및 원내 정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정보보호 관련 환경수준을 평가하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병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와 정보보호 업무를 융합하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높은 윤리적 책임을 유지하며, 보안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더 협력하여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는 교직원들의 칭찬 릴레이로 병원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광인들을 만나봅니다.



응급실 조승원, 김경준, 김진아 병동원

응급실 병동원 선생님들은 항상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안전한 이송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걱정이 많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대해줍니다.

또한 응급실의 특성 상 밤낮없이 쉴 틈도 없이 근무의 연속이지만 짜증내는 표정 하나없이 늘 검사와 치료를 위해 도와줍니다.

이런 병동원 선생님들을 우리는 늘 당연한 것 처럼 여기지만 언제나 응급실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추천인 : 신경과 이학승 교수

이달의 간호사



52병동 이현경 간호사

이달의 간호사라는 귀한 상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환자 곁에서 귀 기울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여겨 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때도 있었지만, 환자분들의 미소와 동료들의 격려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해준 동료 간호사들과 나눠야 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의 글 : 52병동 박도연 수간호사

이현경 간호사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어렵고 힘든 병동 중환자들을 간호하여 환자가 빠르게 완쾌하도록 돕고 타부서 직종간에도 스스로없이 친근하게 대하며 의료진에게 신임을 받고 부서원과 학생들에게도 믿음직하게 교육을 잘 시키고 간호업무에도 적극 관심을 보이며 성실히 업무에 임합니다.

또한 Q서포터즈 활동도 자처해서 환자안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으로 자기 발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능숙하게 이루어지며, 간호사로서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부서 우수인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직/원/동/정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신규임용 인사발령 기준

간호사	
• 21병동 성수빈	• 91병동 안희원
• 31병동 강희정	• 간호외래 소화기센터 오민상
• 52병동 백하림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김강현
• 53응급병동 손세희	• 수술실 김가은 오하영
• 55병동 양유진	• 신생아집중치료실 김민채 김현정
• 61병동 정지우	• 응급실 심지혜
• 62병동 이지원	• 전담간호팀(외상의학과) 김지원 김지혜
• 63병동 황은진	• 이소원
• 71병동 김세희	• 제1집중치료실 문호연
• 81병동 이수빈	• 제3집중치료실 박경은 정윤서
• 83병동 김지은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퇴직

의사		간호사	
• 정신건강의학과 이귀행	• 피부과 조혜진	• 21병동 한지연	• 51병동 이은아 배세진
진료지원·행정		• 52병동 허현지	• 53응급병동 유영서
		• 의공팀 진호정	• 55병동 양채연
		• 71병동 황희지	• 73병동 장수진 최지희
		• 신생아실 김효신	• 진료협력팀 김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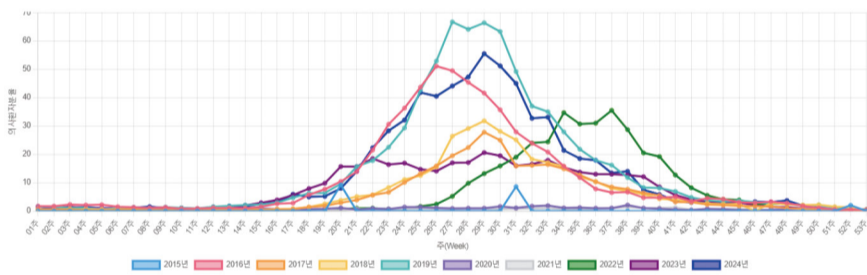
아이의 입이나 손발에 물집이? 수족구병

소아청소년과 유승택 교수



2024년은 영유아(0~6세)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한 해였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10년의 발병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족구는 날씨가 더워지는 4월말부터 11월초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드물게 뇌수막염으로 이환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매우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엔테로바이러스 그룹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이들 바이러스 중에서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등도 원인이 된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수족구병 뿐만아니라, 무균 수막염, 뇌염, 폐출혈, 심근염, 마비 질환, 쇼크 등을 초래하여 콕사키바이러스 A16형보다 훨씬 심한



우리나라에서 10년동안(2015~2024년) 연간 주차별 수족구 발생

정의

수족구병은 손발입병이라고 하며 손, 발, 구강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통 10세 이하의 소아에게 잘 생기지만 성인에서도 이환될 수 있다. 손바닥, 발바닥, 입술에 수포가 생겼다가 껍질이 되는 증상이 특징이며, 발진은 초기증상이 나타난지 7~10일정도 후에 생긴다. 수족구병 환자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같은 집단생활에서 제외시켜 자가격리를 통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원인 및 전파경로

사람이 유일한 자연 숙주이며, 감염된 사람의 비인두 분비물이나 대변이 주된 직접적인 감염원이다.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장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보고된다. 수족구병은 주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감염되지만 청소년 및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염성이 높은 시기는 첫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수포성 발진이 사라질 때까지인 대개 1주일 정도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는 수 주일에 걸쳐 전염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잠복기는 3일

~6일 정도이며, 감염되면 증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호흡기로는 1~3주, 대변으로는 수 주~8주까지 바이러스가 분비된다.

증상

미열, 식욕부진, 콧물, 인후통 같은 초기증상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3~5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초기증상이 나타난지 1~2일 후에는 회색의 3~5mm의 특이한 수포성 발진이 손바닥, 발바닥, 입술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증세는 대개 일주일 정도면 없어진다. 증상은 경미한 편이며, 합병증은 거의 없다. 특히 입안의 병소는 혀, 후인두, 입천장, 잇몸, 입술 등에 나타나며 4~8mm 크기의 궤양이다. 발진은 발보다는 손에 더 흔하고, 3~7mm 크기의 수포로 손바닥, 발바닥보다는 손등, 발등에 더 많다. 엉덩이에서도 종종 발진을 볼 수 있지만 수포화되지는 않는다. 어린 소아에서는 입안의 병소가 심할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통증으로 인해 음식물, 수분 등의 섭취가 곤란하여 심한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간혹 병변이 입에만 생긴 경우에는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에는 분자 유전학적 방법(RT-PCR)으로 검체(대변, 혈액, 뇌척수액, 인후/비인두도찰물, 비강세척액, 소변, 조직 등)에서 바이러스 RNA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으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

치료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을 시행한다. 발열 및 구강 통증에 대한 치료로 해열제, 진통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구강세척이나 스프레이 등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정맥을 통한 수액요법이 필요하다. 뇌염 등의 심한 합병증의 발생시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관리 및 예방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인위생을 청결히 해야 한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자주 손을 씻도록 하며 장난감 등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자주 소독한다. 수족구병이 있는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첫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수포성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가 전염성이 높은 기간이므로 이 시기에는 놀이방, 학교나 유치원 등의 집단생활을 중단하고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특히, 감염된 사람은 공동 세면대에서 손을 씻지 않도록 하며, 감염된 아기의 변이 묻은 기저귀에는 대변 속에 배출된 바이러스가 수 주일 정도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예방접종 백신은 없으며, 한번 감염되면 면역이 생기지만 다른 균주에 의해 감염되면 재발될 수 있다. 약 일주일 남짓이면 자연적으로 완화되지만, 일부에서 심한 임상 경과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진단

초기 진단은 미열이 나는 어린이가 손, 발, 입에 수포성 발진을 보이면 임상증상만으로 수족구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바이러스 배양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검사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심한 임상증상이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참고문헌 및 사이트
1.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2.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2판
3.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이 달의 법문

모든 법의 주인이 되라.



지산 정원도 교수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세계, 국가,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과 각자의 삶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염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마다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건강, 부, 명예, 권력 등 다양할 것입니다. 인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얻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신난득(人身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하여,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만나기란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젠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 실천하는 일에 전일(專一)해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원불교 교조)께서는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그 재주와 박람 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지만,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용심법(用心法)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 ‘자기 마음을 법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말과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한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웃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境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모든 일들’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좋다 밉다 하는 것 또한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맞이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좌우됩니다.

지인이나 동료가 승진했다거나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으로 인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살펴서 정의롭고 법도 있게 잘 사용하는 법이 용심법입니다.

왕산 성도종 중법사(원불교 교단

의 최고 지도자)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우리 모두 ‘하나’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고 하셨습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실천합시다. 근본 마음을 깨달아 모두가 하나임을 알도록 합시다. 그 하나 된 마음으로 감사 생활하고, 보은 실천을 한다면, 은혜 가득한 낙원 세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내 한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부터 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회안내

- 1부 법회 매주 수요일 12:40
- 2부 법회 매주 수요일 15:40
- 영양팀 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09:40 (장소 : 교직원 식당)



063) 859-0012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민 건강과 의학발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병원발전기금 모금안내

원광대학교병원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 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 발전기금 안내**
- 원광대학교병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문의 원광대학교병원 총무팀 발전기금 담당
TEL. 063) 859-2063

기부자 예우

구분	대상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진찰료	본인부담금		VIP카드
누적 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및 직계포함)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10억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무료(무료)	무료(무료)	무료(무료)	무료(무료)	발급(발급)
5억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무료(무료)	50%(50%)	50%(50%)	50%(50%)	발급(발급)
3억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무료(무료)				발급(발급)
1억	기부금액의 10% 이내		무료			발급
5천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50%			발급
1천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발급
5백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발급

• VIP카드 발급 혜택: 전용 창구 개설 및 무료주차
•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내 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원광대학교 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800평 규모의 호남권역 최고 검진센터

원광대학교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진단 노하우와 우수한 교수진, 검증된 병원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강진단 전문센터로서 개원한 이래,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높은 진단, 정밀 의료장비, 평생 의무기록 통합관리,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통해 항상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광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063) 859-1122, 1144

乙巳年 2025

2025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원광대학교병원 교직원 일동

한 해 동안 원광대학교병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금연지원센터	063)859-2400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063)859-1506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063)859-1991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063)859-1375	종합건강증진센터	063)859-1122	
권역외상센터	063)859-1188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63)859-0051	암센터	063)859-1180	응급의료전용헬기 063)837-8334~6 (항공의료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063)835-6700	국제진료협력센터	063)859-0123	
고압산소치료실	063)859-1069	익산권지역책임의료기관	063)859-0066	진료협력센터	063)859-2585	